

# 한국전쟁과 아동문학 · 1\*

## - 이원수의 전쟁 트라우마와 「꼬마 옥이」 -

원종찬\*\*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전쟁의 상처와 죄의식
3.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과 작가 연보
4. 「옥이와 자장가」는 발표된 작품일까?
5. 「꼬마 옥이」의 상호텍스트성
6. 「꼬마 옥이」의 대표성과 상징성

### 【국문초록】

한국전쟁은 분단시대 아동문학사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전쟁 중에 월남한 강소천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갔으나, 그 맞은편에서 이원수가 또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내고자 힘썼다. 두 작가는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품들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두 작가를 문학사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요구되는데, 작가의 전기적 사항과 작품의 서지사항에 대한 기초조사가 아직까지 부실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이원수의 경우는 주요 작품의 서지사항조차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본고는 후속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이원수의 1950년대 대표작 「꼬마 옥이」의 텍스트 문제를 살피는 기초조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꼬마 옥이」는 「연재 장편」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지면에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완성한 「연작 모음」이고,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가의 수많은 동시대 장·단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심각한 전쟁 트라우마를 앓고 있던 작가에게 「꼬마 옥이」는 대표성과 함께 상징성을 지니는 작품이었다. 작품의 발표 과정에서 연재가 순탄치 않은 일종의 불연속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반공」의 시대 분위기와 작가 내면의 「죄의식」이라는 두 겹의 역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아동문학, 이원수, 「꼬마 옥이」, 전쟁 트라우마, 죄의식, 상호텍스트성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은 분단시대 아동문학사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진보 성향의 작가들은 월북하거나 목소리를 낮춰야 했고, 전쟁 중에 월남한 반공작가 강소천이 문단의 핵심부로 진입해서 전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그런데 부역자 혐의로 쫓겨 월북 무리에 섞였다가 도중에 되돌아선 이원수도 남다른 고투 속에서 ‘강소천 경향’과는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한국전쟁 이후 가시화된 ‘강소천 경향’과 ‘이원수 경향’은 강소천 사후에 문학사적 계보로 확대되어 오랫동안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강소천과 이원수는 분단시대 아동문학사를 관통한 서로 다른 물줄기의 두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해 본 바, 두 작가는 특히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품들에서 공통점과 함께 결정적인 차이점을 드러냈다. 둘 다 심각한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살면서 그 치유 차원에서 잇따라 전쟁을 기억하는 동화를 지었는데, 그중에는 정진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들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공존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학사적 해명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두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각각의 연구들은 줄을 잇는 데 비해 두 작가를 함께 조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sup>1)</sup>

그리하여 한국전쟁 이후 아동문학사의 지형 변화와 관련된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비교 연구하던 중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강소천과 이원수의 장·단편 동화들을 비교 검토하려 했는데 아직껏 기초연구가 매우 부실한 상태임을 알게 된 것이

1) 한국전쟁이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을 폭넓게 살핀 주목할 만한 성과가 보이는데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두 작가의 비교에 초점이 놓여 있지는 않다. 선안나,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강소천과 이원수의 산문 문학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장편 소년소설에 국한된 것들이다. 권나무, 『어린이와 사회를 보는 두 가지 시선 - 이원수와 강소천의 소년소설』,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장영미, 『전후 아동소설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문학단체 및 문학장의 변화로 강소천과 이원수 계보를 살핀 연구도 있으나 작품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줄져,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이충일, 『1950~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두 작가의 전기적 사항에는 여전히 빈 구석이 적지 않으며, 이원수의 경우는 주요 작품의 서지사항조차 불분명했다. 대부분 이원수 전집에 나오는 일부 모호한 연보를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어찌 보면 그럴 만했다. 한국전쟁기의 작가 활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터라 수많은 간접 자료와 정황을 살피서 추론하는 방식에 의존해야 했다. 한국전쟁 관련 강소천과 이원수의 주요 장·단편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이런 기초조사를 병행하려니까 논문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작품에 반영된 전쟁 트라우마와 그 해결 방식의 차이를 논하는 연구에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강소천과 이원수의 작품은 대부분 전쟁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자전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전쟁 트라우마를 앓는 작가의 독특한 자기반영적인 창작은 동병상련이라는 치유의 상상력으로 동시대 독자와 깊숙이 교감을 이룬 기본 바탕이었다. 작품의 발표 시기나 발표 매체에 관한 문제도 당대와의 소통과 관계되는 작가의 주요 선택 사항 중 하나일 것이므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기초연구는 아주 조그만 사실 하나를 밝히는 데에도 수많은 자료를 어렵사리 확보해서 교차 확인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그냥 건너뛸 수가 없다. 가령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원수의 『꼬마 옥이』는 한국전쟁 직후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지면에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완성한 것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가의 수많은 동시대 장·단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은 ‘완성된 텍스트’(이하 ‘완성본’)의 각 에피소드가 발표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완성본’의 어느 에피소드는 도무지 발표 지면을 찾을 수 없다. 그 부분이 하필 작가의 비극적인 전쟁 체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여러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문학사적 해명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강소천과 이원수의 주요 장·단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자면, 우선 텍스트를 둘러싼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특히 『꼬마 옥이』는 1950년대 이원수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음에도 텍스트 비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sup>2)</sup> 이 작품과 관계된 기초조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나의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이러하다. 작품 해석과 평가를 통한 의미 부여는 나중을 기약하고 최소화했다. 본고는 후속 논문을 위한 일종의 예비적 고찰이라는 점을 밝힌다.

## 2. 전쟁의 상처와 죄의식

이원수는 전쟁 중에 두 살, 세 살짜리 어린 자녀를 잃었다. 열 살 먹은 딸도 잃었다가 제주도의 고아원에서 찾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녀를 잃은 작가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원수 전집의 작가 연보에는 1951년 “1·4 후퇴 때 영옥, 상옥, 용화를 잃어버리다. 후에 영옥만 찾다.”<sup>3)</sup>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1·4 후퇴 때’는 ‘9·28 수복 이후’로 고쳐야 더 정확하다. 이원수가 전쟁 중에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건너뛰면 트라우마의 절반쯤은 가려진다.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사정이 없지 않았겠으나 어쨌든 자신의 피신 중에 벌어진 일이라 자녀 상실의 비극은 작가에게 지울 수 없는 죄의식을 남겼다.

전집의 작가 연보 1950년 항목을 보면, “6·25가 일어나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9·28 수복 때까지 경기 공업 학교에 나가 사무를 보다. 당시 교장이었던 첫째 동서 고백한을 집에 숨겨 보호하다.”<sup>4)</sup>라고 되어 있다. 이때의

2) 그간의 연구는 『꼬마 옥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서 제각각 성과를 냈지만, 한결같이 이원수 전집의 서지사항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박성애, 『1950년대 아동산문문학에 드러나는 이념과 윤리의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박영지, 『1950년대 판타지 동화 연구: 이원수의 『꼬마 옥이』와 강소천의 『꿈을 꾀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종순, 『이원수 동화 연구: 사회의식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종순, 『이원수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배덕임, 『『꼬마 옥이』 내의 그림자모티프 연구』, 『동화와변역』 1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변역연구소, 2008; 오세란, 『이원수의 『꼬마 옥이』에 나타난 자기반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이충일, 『1950년대 이원수의 동화, 아동소설 연구』, 『한국문화기술』 5권,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8; 이황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시고』, 『한민족어문학』 6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3) 『이원수 연보』, 『이원수아동문학전집·30』, 웅진출판사, 초판 1984, 16판1쇄 1992, 347쪽.

사정을 낱낱이 확인할 길은 없으나, 서울이 인공치하에 들어갔을 때 협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때문에 9·28 수복 때 부역자 혐의로 쫓겨 도피의 길에 오른 것이다. 전쟁 중의 부역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중죄였지만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다만 작가 이원수의 경우는 지식인으로 분류되어 사상범으로 간주될 게 분명했으므로 일단 피해야 산다는 다급한 마음이 앞섰을 것이다. 이때 이원수는 가족과 헤어졌다. 그리고 동화작가 최병화와 함께 북쪽으로 쫓기는 무리에 섞여들었다.

훗날 이원수는 최병화를 아프게 기억하는 추모 성격의 작가론을 하나 남겼다.<sup>5)</sup>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다. 이 글에 따르면 최병화는 한 마디로 피해자일지언정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선량하기 그지없고 부드러운 심성의 소유자”였으며, 창작에서도 “유달리 곱고 부드러운 필치로 아름다운 순정의 작품(소년소설)을 써서 주목을 끌고 있었”다.<sup>6)</sup> 이런 최병화도 이원수와 함께 부역자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 최병화는 이원수가 1946년 경기공업학교에 재직하면서 김원룡과 함께 『새동무』를 편집할 때 연희대학 교무처에 근무하면서 도와준 적이 있고, 경기공업학교를 그만두고 박문출판사에서 편집할 때 그 출판사에 취직해 와서 전쟁이 나기까지 함께 편집 일을 하는 사이였다.

6·25 전쟁이 터지자 둘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이때 이원수는 전에 근무한 경기공업학교의 교장이었던 K선생(“첫째 동서 고백한”을 가리킴)을 숨겨준다. K선생은 좌파 학생을 퇴학시킨 원한으로 피습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원수가 재직 당시에는 “좌파 교원들과 가깝다 해서”<sup>7)</sup> 못 마땅하다고 여긴 모양이지만 상황이 바뀌자 도움을 청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작가 연보에서 밝힌 동서 고백한 교장을 숨겨준 일은 부역과는 반대의 행위였고, 이원수가 이런 우익 인사를 숨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4) 「이원수 연보」, 위의 책, 347쪽.

5) 이원수, 「동일 승천(冬日昇天)한 나비 최병화 형」, 『이원수아동문학전집·29』. 이하 이원수와 최병화의 피신 기록은 이 글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6) 이원수, 위의 글, 174쪽.

7) 이원수, 위의 글, 176쪽.

문제였다. 그 위치에서 행한 일은 별 게 아니었다고 한다. 전직 학교 선생들로부터 학교에 나와 달라는 간청을 받고 나갔는데,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저 교원들이 모였다가는 헤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sup>8)</sup>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나 직분 같은 것은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 인공치하에서 임시로 조직된 행정체계의 교원 사업에 동원된 듯하다.<sup>9)</sup>

9·28 수복으로 다시 상황이 바뀌자 위기가 찾아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제 뜻과 무관하게 수시로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이때의 사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나는 소위 부역자가 되어,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망연해 있는데, 역시 부역자가 된 최병화 형이 찾아와서 같이 집을 떠나자고 했다. 그도 학교에 나가고 있었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간다면 단신 떠나야 한다. 어디든 피신을 해야 한다. (...)

나는 기어코 최 형과 함께 피난민의 한 사람으로 집을 나서고 말았다.<sup>10)</sup>

‘9·28 수복’이 되면서 이원수가 가족과 헤어져 최병화와 함께 피신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월북이라기보다는 피신에 가깝다는 점도 눈여겨볼 일이다. 이원수와 최병화는 해방 직후 조선문화가동맹에 가담한 적이 있지만, 정부 수립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활동을 지속한 중도와 성향이었다. 크게 보면 조선문화가동맹 활동을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던 정지용, 박태원, 염상섭, 이병기, 황순원 등이 모두 여기 속한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전쟁 기간 중 잠재적 이적행위자 곧 ‘빨갱이’로 낙인찍

8) 이원수, 위의 글, 176쪽.

9) 이원수와 최병화는 인공치하에서 급조된 남조선문화가동맹의 명부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다. 그때까지 이남에 있었던 현덕과 송완순은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다가 9·28 수복 때 가족을 데리고 월북한다. 오제도 편, 『1950.9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등록절』, 한국안보교육협회, 1990, 538쪽, 참조.

10) 이원수, 앞의 글, 176~177쪽.

히서 미구잡이로 학살당하는 불행한 일이 적지 않았다.

둘은 발길 닿는 대로 강원도 쪽을 헤매다 목적 없는 발길에 회의를 느낀 이원수가 먼저 돌아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최병화가 망설였다. 그리하여 38선을 오가며 몇 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1·4 후퇴 시기를 노려 남하하는 사람들의 행렬에 끼게 되었다. 제법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무리였다. 일행은 40여 명이고 10여 명씩 소조를 짜서 최병화는 어느 한 조의 조장을 맡았다. 망우리 고개를 넘어 인솔자 몇 사람이 정탐하러 서울 시내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기별하거든 들어오라고 해서 마을에 머물렀다. 하루가 지나도 기별이 없자 몇 사람이 무단 입경을 결심하고 이원수는 시내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소조의 책임을 맡은 최병화는 마을에 남았다.

사오 명의 청년들과 청량리 얼음길을 걸어 시내로 들어온 이원수는 집안이 풍비박산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자녀 셋을 잃었다는 것이다. 큰 슬픔에 빠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이원수는 인솔자에게 급한 일로 집안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하러 갔다가 이번에는 청량리 밖에 머물던 최병화가 폭격으로 죽었다고 말하러 갔다가 이번에는 청량리 밖에 머물던 최병화가 폭격으로 죽었다고 소식을 듣는다. 잇따른 불행한 소식에 망연해진 이원수는 동행자에게 최병화의 집을 알려 주고는 인천 근방에 피신해 있던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는 집을 비운 사이에 자녀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돌아오자고 끝지 않았더라면 최병화는 살아있을 것인가'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돌아오자마자 티푸스 발병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등 생사의 고비를 넘긴 이원수는 영국군 부대의 노무자로 차출되어 동두천에서 약 1년간의 부대 천막생활을 지냈다. 그런 뒤에 대구로 내려가서 경찰에 자수하고 김팔봉, 김소운, 장만영, 김원룡 등의 신원 보증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원수의 글을 다소 길게 살펴본 것은 앞뒤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원수가 부역 혐의로 가족과 헤어져 떠돌던 시기는 9·28 수복에서 1·4 후퇴 직후까지였다. 이 사이에 아이 셋을 잃었고, 함께 피신한 최병화가 비명횡사하는 비극을 겪은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월북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기에 도중에 선회했으나, 이원수는 최병화와 함께 이적행위자·적색분자로 지목되어 쫓겨다녔다. 분단시대 이원수의 문

학은 이 비극적인 전쟁 기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전쟁 중 이원수와 헤어진 식구들이 자녀를 잃게 된 경위를 마저 살펴보겠다.<sup>11)</sup> 이 부분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탓인지 연구자들이 언급할 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엇갈리곤 한다. 1950년 당시 이원수와 최순애는 슬하에 6남매를 두었다. 1남 경화(1937년생), 2남 창화(1939년생), 1녀 영옥(1941년생), 2녀 정옥(1945년생), 3녀 상옥(1948년생), 3남 용화(1949년생)의 순서다. 막내 용화는 호적에 오르지 않았으나,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1949년생이다. 이원수는 앞서 살핀 최병화를 기억하는 글에서 “한 살짜리와 세 살짜리 아이를 잃은 사실을 알았다”<sup>12)</sup>고 썼다. 그러나 이때는 둘이 아니라 셋을 잃었다. 또한 가족들은 한 살짜리 막내가 ‘6·25 전쟁 바로 앞의 해 김장철’에 태어났다고 기억한다. 손춘익의 이원수 전기에도 전쟁 때 “연년생으로 태어난 젓먹이가 둘”이었고, 아내 최순애는 “한 살 터울인 젓먹이 둘을 데리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언급이 나온다.<sup>13)</sup> 당시 상황이 없었던 이원수의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

9·28 수복으로 이원수가 피신했을 때 나머지 가족은 얼마간 서울에 머물렀다. 아내 최순애는 살길이 막막해서 뭐든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는데 젓먹이들이 문제였다. 열 살 넘는 첫째와 둘째 아들은 최순애를 도와 거리에서 신문 팔기, 배 팔기 등의 장사를 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나중에 찾아오기로 하고 일단 명동성당에 맡겼다. 성당은 부모를 잃었거나 맡겨진 아이들로 들끓었다. 맨 아래 둘을 먼저 맡기고 좀 뒤에 다시 둘을 맡기러 갔는데, 여섯 살 정옥은 기어이 엄마를 따라 나와서 이모네로 보내졌다. 결국 1녀 영옥, 3녀 상옥, 3남 용화가 성당에 맡겨졌다. 성당은 보육원이 아니라 난민수용소 같은 곳이어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아이들을 그때그때 전국각지의 고아원으로 또는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한다. 나중에 수녀에게 들은 말이지만, 막내

11) 이원수 유족의 증언은 이원수 연구로 석·박사 학위논문은 쓴 박종순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유족과의 면담으로 알아낸 정보가 학위논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듯해서 따로 발표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다가 호적 사항을 비롯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

12) 이원수, 앞의 글, 180쪽.

13) 손춘익, *웅진위인전기*·35 『이원수』, 웅진, 초판 1987, 개정판 4쇄 1997, 102쪽.

용화는 바로 이질에 걸려 사망했고, 서울에 폭탄 세례가 퍼부어지면서 영옥과 상옥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최순애는 제주도 해군병원에 남편이 근무하는 동생 최영애에게 아이들 잃은 사실을 알려서 그곳 고아원으로 보내진 영옥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최순애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영옥을 데려온 것은 1952년 4월경이었다. 하지만 상옥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이원수는 세 살짜리 상옥이 무차별 폭격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 3.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과 작가 연보

이원수의 「꼬마 옥이」는 전쟁 트라우마가 빚은 독특한 동화적 상상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텍스트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원수 전집에 수록된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은 “1953~1955년·소년세계, 학원”<sup>14)</sup>이라고 되어 있다. 작가 연보에도 1953년에 「꼬마 옥이」를 발표한 사실이 주요 사항의 하나로 올라있다.<sup>15)</sup> 그런데 ‘죽은 옥이가 환영(幻影)으로 나타나서 나의 말벗이 되는 경위’를 상세하게 밝힌 「꼬마 옥이」의 첫 부분은 『학원』 1954년 2월호에 실려 있다. 여기저기 발표된 것들을 모아서 출간한 「꼬마 옥이」 ‘완성본’은 『한국아동문학전집·5-이원수 작품집』(민중서관, 1963)에 실린 것이 처음이고, 이 텍스트가 창비아동문고 1권 『꼬마 옥이』(창작과비평사, 1977)와 사후에 엮은 『이원수아동문학전집·3』(웅진출판사, 1983)에 그대로 이어졌다. 옥이를 떠나보내는 내용을 지닌 ‘완성본’의 마지막 부분은 『소년세계』 1955년 4월호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은 ‘1954~1955·『학원』, 『소년세계』’라고 기록해야 맞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혹시 1954년 2월 이전에 발표한 작품 가운데에도 ‘완성본’에 포함된 텍스

14) 이원수, 「꼬마 옥이」, 『이원수아동문학전집·3』, 77쪽.

15) 「이원수 연보」, 『이원수아동문학전집·30』, 348쪽.

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완성본’에서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꼬마 옥이』 ‘완성본’의 각 장별 소재목 순서대로 발표지를 하나하나 대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재목	발표지
‘처음 이야기’, ‘그림자들의 이야기’	『학원』 1954년 2월호
‘옥이와 자장가’	(발표 미상)
‘옥이의 천국’	『소년세계』 1955년 1월호
‘별나라 구경’	『소년세계』 1955년 2월호
‘3월의 무도회’	『소년세계』 1955년 3월호
‘복사꽃 피는 저녁’	『소년세계』 1955년 4월호

처음 시작은 『학원』이었으나 주로 『소년세계』에 연재했음을 알 수 있다. ‘완성본’은 연재분을 그대로 이어붙인 것이라 내용 변화는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연재분에 해당하는 ‘옥이와 자장가’는 도무지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1950년대 『학원』과 『소년세계』를 빠짐없이 살펴보고, 같은 기간의 주요 아동잡지 『새벗』을 비롯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최대한 조사해 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옥이와 자장가’를 발표한 시기가 문제겠다. ‘처음 이야기’가 프롤로그 격이라 그 뒤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각각의 이야기는 ‘나’와 ‘꼬마 옥이’의 대화 장면을 공유할 뿐이지 거의 독립적인 에피소드라서 단정할 성질은 아니다.

『꼬마 옥이』에 대해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꼬마 옥이』는 ‘연재 장편’이 아니라 ‘연작 모음’이다. 꼬마 옥이가 등장함에도 ‘완성본’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이 존재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원수 전집에 실린 『정이와 오빠』 하나다. 이 작품의 일부라도 ‘완성본’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봤으나 그렇지 않았다. 독자에게 주어진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은 마땅히 ‘완성본’을 이루는 텍스트의 발표지와 시기로 판명함이 옳다. 하지만 작가 연보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저기 『꼬마 옥이』 연작을 발표한 시기

와 ‘완성본’의 서지사항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하필 ‘완성본’ 바깥에 있는 「정이와 오빠」도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전집에 수록된 「정이와 오빠」의 서지사항은 “1953년 · 서울신문”<sup>16)</sup>이라고 되어 있다. 『학원』 1954년 2월호 수록분보다 시기가 앞선다. 이 「정이와 오빠」를 넣어서 전집의 작가 연보와 서지사항이 작성된 듯하다. 「정이와 오빠」를 보니, 다음과 같은 짤막한 프롤로그가 붙어 있다.

나는 불행히도 잃어버린 옥이 대신 꼭 옥이와 같은 모습의 조그만 인형 하나를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인형은 이상하게도 밤이면 스르르 자라나서 귀여운 옥이가 되어 가지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지만 인형이 금세 자라서 옥이로 변하게 되면 나는 무한정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운 옥이를 만나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귀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귀여운 옥이를 내 손으로 만져 볼 수는 없지요. 인형에서 나타나는 옥이는 정녕 그림자인가 봅니다.<sup>17)</sup>

이 뒤부터는 성당의 뽕죽탑이 바라보이는 명동을 배경으로 정이네 식구가 겪는 전쟁의 비극을 영혼의 존재인 옥이가 보고 전하는 내용이다. 1인칭 서술자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의 전달자로 ‘전지적인 옥이’를 등장시키면서 프롤로그를 붙인 것인데, “불행히도 잃어버린 옥이 대신”이라고 간략히 넘어간 것은 이미 옥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는 표시로 읽힌다. 이 프롤로그에 비한다면 『학원』 1954년 2월호에 실린 「꼬마 옥이」의 ‘처음 이야기’는 ‘피난길에서 만난 부모 없는 어린 소녀 옥이를 데리고 지내다가 병으로 잃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을 자세히 소개한 것이라 전체 이야기의 입구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이와 오빠」에 짤막한 프롤로그를 또 붙인 것은 발표지를 달리한 까닭이라고 판단된다.<sup>18)</sup>

16) 이원수, 「정이와 오빠」, 『이원수아동문학전집 · 3』, 81쪽.

17) 이원수, 위의 글, 78쪽.

「정이와 오빠」가 정말 1953년에 발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1950년대 자료를 샅샅이 뒤졌으나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1950년대 『서울신문』은 기사 검색이 안 된다. 다행히 1950년 10월 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는 영인본 『6·25 전쟁기간 4대신문: 서울신문(1~3)』(LG상남언론재단, 2009)으로 기사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1954년 1월 1일부터 1956년 2월 29일까지는 국회도서관에서 마이크로자료로 기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원수의 작품은 1955년 1월 1일자에 실린 짧은 소년소설 「새해 선물」 하나 뿐이다. 윤석중의 동시 「설날」과 나란히 실린 것으로 보아 신년 특별기획인 듯하다. 1950년대 『서울신문』은 앞뒤 2면 1장짜리였다. 최정희의 「녹색의 문」, 정비석의 「자유부인」, 염상섭의 「젊은 세대」 같은 연재소설을 실은 것 말고는 작품 수록이 거의 없어 「정이와 오빠」가 나왔더라면 그게 외려 이상스럽게 여겨질 만했다. 이 작품의 발표지와 시기도 ‘옥이와 자장가’처럼 의문점으로 남는다.

#### 4. ‘옥이와 자장가’는 발표된 작품일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옥이와 자장가’가 『학원』이든 『소년세계』든 1954년 3월~12월호 사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원수는 이 기간에도 『학원』과 『소년세계』에 수시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다. 『학원』에

18) ‘완성본’에 없는 짝막한 프롤로그가 발표지를 옮긴 『소년세계』 1955년 1월호의 「꼬마 옥이-옥이의 천국」에서도 나타난다. 이후 『소년세계』에 세 차례 더 이어진 「꼬마 옥이」 연재분에는 이런 프롤로그가 없다. 1955년 1월호 「꼬마 옥이-옥이의 천국」에 붙인 프롤로그는 이러하다. “꼬마 옥이는 내가 데리고 있던 귀여운 아이다. 착하고 재치 있고 얽얽한 소녀, 나를 따라 다니며 내 일을 도와주고 방글방글 웃으며 내 맘을 항상 즐겁게 해 주던 그 옥이가 내게 인형 하나만을 남겨 놓고 갑자기 나를 떠나 버린 것이다./나는 슬퍼서 울었으나 한번 간 옥이의 모습과 같아 보여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 그 인형이 스프르 옥이가 되어 내게 얘기를 해 주었다./처음에는 나도 놀랐으나 인형에서 변해 나타나는 옥이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고는 사라져 다시 인형이 되어 버리곤 한다. 내가 옥이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나가 그의 혼이 와서 내게 자주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옥이의 얘기는 여러가지로 많다.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옥이가 얘기한 대로 옮기는 것이다.”(이원수, 「꼬마 옥이-옥이의 천국」, 『소년세계』, 1955.1, 4쪽.)

는 6월호에 동화 「그림 속의 나」, 12월호에 동화 「큰 세상 작은 세상」을 발표했고, 『소년세계』에는 ‘정민’이란 필명으로 5월호부터 「소년 서유기」를 연재했다. 1955년 1월호부터 4월호까지 「꼬마 옥이」를 네 차례 연재할 때에도 「소년 서유기」의 연재는 계속되었다. 『학원』 1954년 2월호에 처음 발표한 「꼬마 옥이」는 비록 연재임을 알리지는 않았으나 큰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처음 이야기’와 ‘그림자들의 이야기’를 이어갔기에 속편을 염두에 둔 형식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2회분도 『학원』에 발표했어야 자연스럽다. 『학원』에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기대 독자를 중학생 정도로 잡았다는 뜻이겠다. 만일 이 뜻이 바뀌어서 『소년세계』로 옮겨간 것이면 거기에 2회분을 발표했어야 자연스럽다.

이렇게 앞뒤 사정이 비교적 희한데도 ‘완성본’의 2회분만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으니 궁금증이 더해진다. 『학원』에서 그대로 속편을 이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발표하지 못하고 묻어둔 원고를 나중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새로 써넣어서 ‘완성본’을 펴낸 것은 아닐까? ‘옥이와 자장가’를 살펴보니 그럴 만한 정황이 없지 않다. 어디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작가의 비극적인 전쟁 기억을 가장 직접적으로 토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꼬마 옥이」는 작가로 짐작되는 서술자 ‘나’와 환영으로만 보이는 ‘옥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판타지로서, 옥이가 내게 들려주는 경험(환상 영역)과 내가 옥이에게 들려주는 경험(현실 영역)을 각각의 에피소드로 삼아 연결한 움니버스 형식이다. ‘처음 이야기’는 꼬마 옥이를 만나게 된 경위를 소개하는 프롤로그 격이고, ‘그림자들의 이야기’는 옥이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 ‘옥이와 자장가’는 내가 옥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옥이의 천국’, ‘별나라 구경’, ‘삼월의 무도회’는 모두 옥이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 마지막 ‘복사꽃 피는 저녁’은 내가 훌쩍 커버린 옥이를 떠나보내고 눈물짓는 자신에게도 하직 인사를 하며 환상의 막을 내리는 에필로그 격이다.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는 ‘옥이와 자장가’만 유일하게 내가 옥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혼자 피난길에 나섰다가 “무서운 불길 속에서 (...) 처참한 죽음”을 당한 어린 딸의 소식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떠

리를 쥐어 뜯으며”<sup>19)</sup> 괴로워하는 자신의 과거를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토로하는 내용이다. 작가의 전쟁 트라우마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옥이와 자장가’에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가족과 헤어져 혼자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연은 다음과 같이 뭉뚱그려서 표현했다.

옥이!

나는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유랑의 나그네인 양, 기차도 자동차도 타지 못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었다.

고요하고 깨끗한 것을 즐기는 나에게, 다가온 운명이 너무나 요란하고 징그러워, 동네 사람들이 떠나듯이 나도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피난의 길을 떠난 것이었다.

이차피 같이 모여 살 수 없을 바엔 나 하나라도 먼저 집을 떠남이 뒤에 남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으리라……. 뒷날 다시 만나면 더구나 반가우리라. 이런 생각을 애써 가져 보면서 나는 나대로 외로운 나그네가 되었던 것이었다.<sup>20)</sup>

이 유랑의 길에서 “내 딸 상희”의 처참한 죽음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며, 영국군 노무자로 부대의 천막에서 지낼 때 외로움이 밀려들면 만돌린으로 죽은 딸아이를 위로하는 자장가를 연주하곤 했다는 것이다. 전쟁의 상처를 내보이는 게 이념적으로 문제시될 까닭은 없다. 하지만 부역 혐의로 피신하던 중에 딸아이가 참사를 당한 것이라 작가의 자의식만큼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원수를 잘 아는 편집자나 문인이라면 텍스트 행간에서 숨겨진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 작가는 딸아이의 죽음을 애통하게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19) 이원수, 『꼬마 옥이』, 『이원수 아동문학전집·3』, 44쪽. ‘완성본’을 1963년 민중서관에서 펴낸 이래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이원수 전집에 실린 것을 기본텍스트로 삼았다.

20) 이원수, 위의 글, 41쪽.

공교롭게도 『학원』 1954년 3월호에는 강소천의 『꿈을 파는 집』이 실려 있다.<sup>21)</sup> 이 동화도 작가의 전쟁 트라우마를 잊볼 수 있는 작품인데, 반공을 표나게 내세운 점이 걸린다. 작가로 짐작되는 서술자 ‘나’는 출판기념회를 끝내고 온 다음 날, 여차저차 푸른 알약을 먹고 새가 되어 이북의 고향집으로 날아가서, “누더기를 입고, 맨발을 벗은, 파리해진 세 얼굴!”<sup>22)</sup> 바로 자기 자식들을 보곤 목 놓아 운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더는 볼 수가 없다고 여긴 나는 “새가 아니라 뼈젓이 너희들의 아버가 되어, 이 고향의 새로운 임자가 되어, 태극기 앞세우고 찾아오리라.”<sup>23)</sup> 하고 속으로 외치고는 그냥 돌아온다. 눈으로 본 자식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새가 되어서는 “다시 고향집에 가보고 싶지 않”<sup>24)</sup> 다고까지 마음먹으면서 끝이 난다. 새가 되어 그리움을 해소한 게 아니라 화만 쌓은 꼴이다. 이런 강소천의 반공동화와 이원수의 ‘옥이와 자장가’를 나란히 신는 것은 편집자에게 여간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원수가 보기에든 함께 수록하기에는 심히 꺾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당히 결이 다른 전쟁 트라우마이자 치유 방식이다. 텍스트 문제를 파헤칠수록 ‘옥이와 자장가’는 발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 5. 『꼬마 옥이』의 상호텍스트성

‘옥이와 자장가’에서 내가 옥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수필 『가을과 만들린』(『방송문화』, 1957)의 내용과 거의 겹친다. 『꼬마 옥이』는 창작동화지만, 특히 ‘옥이와 자장가’ 에피소드는 작가 자신의 슬픈 이야기임을 이 수필로써

21) 같은 시기 강소천은 『소년세계』(1954.3)에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실었다. 같은 달에 지면을 달리 해서 발표한 쌍둥이 같은 작품이지만, 『꿈을 찍는 사진관』은 정전에 속하고 『꿈을 파는 집』은 실패작에 속한다. 이 문제는 후속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22) 강소천, 『꿈을 파는 집』, 『학원』, 1954.3, 177쪽.

23) 강소천, 위의 글, 177쪽.

24) 강소천, 위의 글, 179쪽.

알 수 있다. 옥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작가 이원수임을 알려주는 표시는 ‘옥이와 자장가’의 첫 구절에 바로 나온다. 자신의 작품 『구름과 소녀』에 대해 말하면서 마치 수필을 쓰듯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내가 지은 동화 『구름과 소녀』의 이야기들은 그 원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찾아 한데 묶어 놓느라고 책장 속을 뒤져 정리를 하다가 밤이 늦은 걸 깨달았다.

인제 자야겠다 생각하고 자리에 들었으나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 이 일 저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새 나타났는지 모르게 책상 앞에 옥이가 앉아서,  
“선생님!”

하고 부르지 않는다.<sup>25)</sup>

‘옥이와 자장가’에서 더욱 뚜렷해진 자기반영성은 범박하게 보아서 독자에게 이야기의 신뢰성을 보태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작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창작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신 중에 소식으로 들어서 알게 된 ‘딸아이의 죽음에 대한 아픈 기억’과 서툰 만들어진 솜씨로 들려주는 ‘자장가 노래’는 이 텍스트가 작가의 고해성사 같은 자기 고백이요 속죄이고 죽은 딸아이에 대한 애도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년세계』 1955년 1~4월호에 잇따라 연재하면서 마무리한 『꼬마 옥이』의 마지막 장 ‘복사꽃 피는 저녁’을 보면, 어른이 되어 짝을 만난 꼬마 옥이를 떠나보내며 눈물짓는 ‘나’가 나오는데, 그런 ‘나’와도 결별하는 현실의 ‘나’가 또 분리되어 나오면서 끝이 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려는 통과의례로서의 자기반영적인 글쓰기를 보여주는 결말이다.<sup>26)</sup>

죽은 딸아이에 대한 슬픔과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을 해방하고 과거에

25) 이원수, 『꼬마 옥이』, 『이원수아동문학전집·3』, 39~40쪽.

26) 이런 창작방법을 박성애는 ‘윤리의식’의 회복을 위한 ‘고백’과 ‘기억’의 장치로 주목하고, 오세란은 ‘자가지(知)’를 통해 ‘자아의 전환’을 도모하는 ‘치유’의 방식으로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성애, 앞의 논문; 오세란, 앞의 논문, 참조.

대한 미련이 아니라 자기 앞의 현실과 대결하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속죄와 애도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옥이와 자장가’는 그 통과의례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퍼즐로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이네 가족의 비극을 옥이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한 「정이와 오빠」를 빼고 자기 경험을 직접 토로한 ‘옥이와 자장가’를 끼워 넣어서 ‘완성본’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sup>27)</sup> 죽어서 환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옥이도 실은 작가가 불러온 죽은 딸아이의 환영일 것이다. ‘옥이와 자장가’는 죽은 딸아이 ‘상옥’의 이름을 한 자씩 떼어내서 만든 ‘옥이’와 ‘상희’가 모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두 아이 모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두 겹의 이야기 구조인 점을 지나칠 수 없다.

한편, 앞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구름과 소녀」도 「꼬마 옥이」처럼 여기저기 발표한 것들로 완성한 ‘연작 모음’이다. 「꼬마 옥이」와 일부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차칫 각각의 단편 제목을 혼동하기 쉽다. 한국전쟁 이전 『소학생』 1950년 3월호에 「정이의 구름」으로, 4월호에 「나그네 구름」으로 이어서 발표한 것이 시초다. 내용은 연속성을 지니는데 목차와 본문 어디에도 「구름과 소녀」라는 제목은 보이지 않으며 연재임을 알리는 표시도 없다. 그러다가 『소년세계』 1953년 9월호에 발표한 「강물」로 다시 이어지면서 비로소 제목 앞에 “「구름과 소녀」에서”라는 표시가 나온다. 이 연작 단편들을 거두어 완성한 텍스트는 1961년 현대사 발행의 『구름과 소녀』에 실린 것이 처음이다.<sup>28)</sup> 「구름과 소녀」 ‘완성본’의 각 장별 소제목은 ‘정이의 구름’, ‘나그네’, ‘강물’, ‘구름이 한 이야기’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간 발표한 연작들의 순서와 내용 그대로다. 그런데 마지막 ‘구름이 한 이야기’는 또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전집에 수록된 「구름과 소녀」의 서지사항은 “1950년~1955년 · 소년세계”<sup>29)</sup>라고 되어 있으나 고쳐야 한다. 『소년세계』에 발표된 것은 「강물」 하나

27) 「정이와 오빠」는 작가의 가족사를 변형한 내용이다. 정이네 동네가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면서 정이와 오빠가 헤어지게 되는데, 정이는 오빠가 전장에서 죽어 흩어 된 것도 모르고 날마다 낮은 돌층계에 앉아서 오빠를 기다리다 돌아간다.

28) 이원수, 『구름과 소녀』, 현대사, 1961. 이 작품집에는 1959~1960년 『세뭇』에 연재된 「아이들의 호수」와 1950년부터 여기저기 발표한 것들을 이어 붙여서 완성한 「구름과 소녀」가 함께 실려 있다.

뿐이다. ‘구름이 한 이야기’의 발표지를 확인하고자 1950년대의 잡지와 신문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딱히 숨어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터라 이 마지막 에피소드도 ‘완성본’을 꺼내면서 새로 써넣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원수가 『구름과 소녀』의 속편을 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담은 1956년의 수필이 하나 있는데, 시작과 끝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미 1950년대에 내가 쓴 동화에 『구름과 소녀』라는 것이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잡자기 그 동화의 속편을 써 보고 싶어 다시 붓을 들고 있는데 옆방에 있던 딸아가 와서 나를 부른다.

(…)

내 방 이불 속에 들어와 엎드려서 다시 붓을 들었다. 그러나 동화 『구름과 소녀』의 속편을 쓰려는 내 머리맡에는 꿈 같은 향수와 어린 소녀에 대한 그리움의 이야기인 그 동화 대신 내 주위에 벌어져 있는 어른들의 흐느낌과 신음만이 호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그만 붓을 던지고 번듯이 드러눕고 말았다.<sup>30)</sup>

1956년에 쓴 수필이니까 『구름과 소녀』(1950년~1955년) 이후의 속편을 쓰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강물』(『소년세계』, 1953.9)부터는 이미 발표한 각 편에 대해 『구름과 소녀』로 지칭했다는 점, 그런데 『강물』까지만 발표지가 확인되고 ‘구름이 한 이야기’는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발표한 각 편들을 모아 ‘구름이 한 이야기’로 끝나는 ‘완성본’은 1961년에 나왔다는 사실로 인해, 속편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강물』 이후를 쓰고 싶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름이 한 이야기』(발표 미상) 이후를 쓰고 싶다는 것이겠다. 만일 ‘구름이 한 이야기’에서 ‘작가가 의도한 결말’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속편은 『강물』 이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는다.

29) 이원수, 『구름과 소녀』, 『이원수아동문학전집』 3, 183쪽.

30) 이원수, 『불운 속에서』(『문학예술』, 1956.3),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6, 136~139쪽.

‘구름이 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시 물이 된 구름이 아기 기저귀를 빨래하러 냇가에 나온 ‘어른 정이’의 곁을 울며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으로 연작이 일단락되었음은 자작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완성본’ 출간 이후인 1965년의 『아동문학 입문』에서, 이원수는 현대 동화의 특징과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구름과 소녀』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다.

시냇물이 된 구름이 예전에 본 일이 있는 정이라는 소녀를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이 테마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 애정의 슬픔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교훈보다도 넓은 인생의 애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sup>31)</sup>

어른이 된 정이를 보고 물이 된 구름이 울며 떠내려가는 결말은 연작 『구름과 소녀』의 주제(“이루어지지 않는 욕망, 애정의 슬픔”)를 의식하고 만들 어낸 ‘의도의 산물’임을 이 해설은 보여준다. 물론 ‘구름이 세상을 구경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정이가 ‘소녀’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구름이 한 이야기’를 쓴 이후에도 『구름과 소녀』 속편 운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애초 『정이의 구름』, 『나그네 구름』 연작은 소녀를 떠난 물이 구름이 되어 세상을 떠돌다가 다시 물이 되어 소녀와 만나는 행복한 결말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강물』에서는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집착이 아닐까 싶을 만큼 분리 불안의 강박증을 보이는 물(구름)의 여정이 되풀이된다. 그러다가 ‘구름이 하는 이야기’를 더 보태면서 ‘만남과 이별’이라는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작품으로 간신히 『구름과 소녀』가 완성된다. 이 연작은 스토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심하다 훗날 급히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실패작에 가깝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강물』을 쓰던 무렵의 작가 상황이다. 『소

31) 이원수, 『아동문학 입문』(1965), 『이원수아동문학전집·28』, 84~85쪽.

년세계』 1953년 9월호에 발표한 「강물」에서 처음 ‘구름과 소녀’라는 연작의 제목을 붙였는 바, 이때는 작가가 전쟁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때였다. 그래서인지 「강물」에서도 스치듯이 전쟁의 비극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시기 이원수의 창작은 전쟁의 상처와 죄의식을 꺼안고 뒹구는 몸부림 같은 것이었다. ‘딸아이의 죽음’과 연관된 작품, 자기반영적으로 보이는 ‘죄의식’과 연관된 작품은 대부분 전쟁 직후에 나왔다. 여기저기 발표한 「꼬마 옥이」 연작을 포함해서 「꼬마 옥이」, ‘완성본’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니는 이원수의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르	작품명	발표지	비고
동화	「정이와 딸래」	『소년세계』 1952.9	정이가 인형과 놀면서 전쟁 때 잃어버린 제 동생을 생각한다.
동화	「달나라의 어머니」	『소년세계』 1953.5	전쟁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이 벌이 되어 반짝인다. 작품 끝에 “전쟁 때 잃은 상옥, 용화를 생각하며”라고 붙였다.
동시	「소쩍새」	『소년세계』 1953.6	“잃어버린 내 동생이/죽었다며는/죽었다며는 //어쩌나 오빠 오빠/우는 저 소리”(5~6연)
동화	「강물」	『소년세계』 1953.9	전장에서 총 맞아 죽은 오빠를 기다리는 아가씨를 보고 눈물지었다는 구름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와서 “「구름과 소녀」에서”라는 표시가 붙는다.
동화	「정이와 오빠」	『서울신문』 1953(?)	정이네 동네가 전쟁으로 불바다가 되어 정이와 오빠가 헤어진다. 정이가 기다리는 오빠는 전장에서 싸우다 죽어 흩어 되었다는 것을 옥이가 내게 이야기한다.
동화	「뽕꾸기 소년」	『소년세계』 1954.2	뽕꾸시계에서 나온 뽕꾸기가 소년이 되어서 어릴 적 나의 죄의식을 환기시킨다.
동화	「꼬마 옥이」	『학원』 1954.2	‘처음 이야기’에서 죽은 옥이가 환상으로 나타난다. ‘그림자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림자들이 주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죄의식을 환기시킨다.
동화	「그림 속의 나」	『학원』 1954.6	꿈에서 본 소년이 나타나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어릴 적 기억과 이어지면서 죄의식을 환기시킨다. 전집의 서지사항은 “1954년·새벗”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동화	『꼬마 옥이』 연재	『소년세계』 1955.1~4	‘옥이와 천국’에서 천국에 간 옥이가 지옥의 불길에서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구원한다. ‘별나라 구경’에서는 죽어서 별이 된 ‘별아이’들이 나온다.
동화	『아이들의 호수』	『새벗』 1959~60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아이들이 아우성치는 장면, 전쟁에서 갓다미에 묻힌 아이들이 호수의 오리가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이원수의 불행한 가족사-개인의 전쟁 기억’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들이다. 1952년 1편, 1953년 4편, 1954년 3편, 그리고 1955년에 『꼬마 옥이』 연작 4편이다. 이후에는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한층 폭넓게 그린 『아이들의 호수』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가족사와 직접 연결되는 작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구름과 소녀』의 속편을 고민하는 내용의 수필 『불운 속에서』의 끝부분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리움의 이야기인 그 동화 대신 내 주위에 벌어져 있는 어른들의 흐느낌과 신음” 때문에 붓을 던져 버렸다는 말이 나온다. 환상적인 동화보다는 사실적인 소설 창작이 더욱 절박해진 사회적 현실에 괴로워하는 모습이다.<sup>32)</sup>

이원수의 현실의식은 4·19 혁명을 고비로 한층 가파르게 고조된다. 『꼬마 옥이』 연작 이후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품은 동화 『아이들의 호수』를 거쳐 소년소설 『민들레 노래』(1960~1961), 『메아리 소년』(1965~1966) 등으로 이어진다.<sup>33)</sup> 후속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들은 ‘공인된 전쟁 기억’에 균열을 내면서 반공주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맞서는 새로운 경향을 아동문학사에 각인시킨 성과들이다. 훗날 권정생은 ‘한국전쟁 소년소설 3부작’

32) 훗날 권정생도 유신 말기에 비슷한 괴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 뒤에 ‘한국전쟁 소년소설 3부작’이 나온다. 참고, 『속죄양 권정생』,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참조.

33) 이원수 전집에 따르면, 『아이들의 호수』는 1959년~1960년 『새벗』에 연재되었고 1961년 현대사에서 발행한 『구름과 소녀』에 처음 수록되었다. 『민들레 노래』는 1960년~1961년 『새나라신문』에 연재되었고 1961년 학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메아리 소년』은 1965년~1966년 『국민학교어린이』에 연재되었고 1968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발표 당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난점은 1960년대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으로 이 흐름을 이어갔다.

## 6. 「꼬마 옥이」의 대표성과 상징성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시작한 연구건만 복잡한 추리의 회로를 맴돌다가 여기에 이르렀다. 의미 없는 논의는 아닐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 가운데 핵심을 추려보겠다. 「꼬마 옥이」의 연작 「정이와 오빠」와 「꼬마 옥이」 ‘완성본’의 두 번째 에피소드 ‘옥이와 자장가’는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미흡한 조사 탓이려니 했으나, 본격적인 자료 조사를 한 차례 끝내고 난 뒤로는 어떤 사정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추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발표지가 훗히 예상되는데도 정작 확인이 되지 않는 사실부터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설사 어느 구석에서 작품이 발견되더라도 결론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듯하다. 한국전쟁이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며, 본고의 주된 관심은 여기를 향해 있다.

이원수는 인공치하의 부역 혐의로 9·28 수복 직후 쫓기는 몸이었는데, 그때 자녀 둘을 영원히 잃는다. 「정이와 오빠」와 ‘옥이와 자장가’는 ‘개인의 전쟁 기억-자식을 잃은 불행한 가족사’를 담아낸 것들이다. 이원수는 「꼬마 옥이」 ‘완성본’을 펴내면서 「정이와 오빠」를 빼고 ‘옥이와 자장가’를 넣었다. 「꼬마 옥이」의 여러 에피소드는 ‘전지적 존재인 옥이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러나 ‘옥이와 자장가’는 내가 자기 경험을 옥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정이와 오빠」를 넣는 것이 형식적 통일에 도움이 되더라도 ‘옥이와 자장가’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지 작가의 의증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상처로 몸부림치던 작가에게는 어떤 전환의 계기가 절실했다. 마침내 작가는 1955년 집중적으로 연재한 「꼬마 옥이」의 마지막 장에서 그때까지의 ‘나’와 결별하는 모습을 그려 넣는다. 두 번째 에피소드 ‘옥이와 자장가’는 언제 쓴 것인지와 관계없이 속죄와 애도라는 통과의례에 맞춘

한 조각으로서 어느 에피소드보다도 결말의 의미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꼬마 옥이』의 연재가 어느 한 곳에서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반공’의 시대 분위기와 자기 안의 ‘죄의식’이라는 두 겹의 억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작가의 전쟁 기억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전쟁 기억과는 달랐다. 단편으로는 발표가 불발되었는지 어쨌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옥이와 작가를 죽은 딸아이에 대한 속죄와 애도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꼬마 옥이』는 이원수의 전쟁 트라우마에 하나의 매듭을 지은 주요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이때까지 발표된 전쟁을 기억하는 작품은 빼어난 수작 또는 걸작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 한계는 각 에피소드의 연결이 들쭉날쭉한 『꼬마 옥이』에도 나타나 있다. ‘3월의 무도회’에서 3·1 만세 사건 에피소드를 끼워 넣은 것은 느닷없다. 만일 정전을 꼽는다면 『꼬마 옥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 트라우마가 낳은 강소천의 『꽃신』(『학원』, 1953.5)과 『꿈을 찍는 사진관』(『소년세계』, 1954.3)이 정전에 오른 것과 비교된다.<sup>34)</sup>

그렇더라도 1950년대 이원수의 작품 가운데에는 단연 『꼬마 옥이』가 최고 반열에 속한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주목한 빈도로써 증명되는 사실이다. ‘이원수의 불행한 가족사-개인의 전쟁 기억’과 연결되는 작품은 예외 없이 『꼬마 옥이』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그만큼 『꼬마 옥이』는 대표성과 함께 상징성을 지니는 문제작인 것이다. 상당 기간 자료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이 작품의 서지사항을 확정할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꼬마 옥이』이 서지사항이 간단치 않은 것은 이 작품의 운명과 관계된 것인지도 모른다. ‘1953년~1955년’ 당시 이원수는 생생한 전쟁의 기억과 고투를 벌이는

34) 지난 2011년 계간 『창비어린이』에서 대학 강단이나 연구단체 등에서 강의하고 있는 아동문학연구자 13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1920년대 이후 그때까지 발표된 작품 중 서사 장르에 한정, 단편과 장편을 막론하고 10작품씩 추천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 강소천은 『꿈을 찍는 사진관』(8회), 『꽃신』(1회)이 추천되었으며, 이원수는 『숲 속 나라』(7회), 『잔디밭 속의 이쁜이』(4회), 『5월의 노래』(1회), 『호수 속의 오두막집』(1회)이 추천되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겠다.

작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작가에게는 이것들이 모두 「꼬마 옥이」였을 수 있다. 앞으로도 발표지가 확인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꼬마 옥이」의 서지사항을 언급할 때에는 텍스트의 사실관계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새벗』, 『서울신문』, 『소년세계』, 『소학생』, 『학원』 등.  
 이원수, 『구름과 소녀』, 현대사, 1961.  
 이원수, 『꼬마 옥이』, 창작과비평사, 1977.  
 『이원수아동문학전집』(전30권), 웅진출판사, 초판 1983~1984, 16판 1쇄, 1992.  
 『한국아동문학독본 · 8 - 이원수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1.  
 『한국아동문학전집 · 5 - 이원수 작품집』, 민중서관, 1963.

### 2. 단행본

- 손춘익, 웅진위인전기 · 35 『이원수』, 웅진출판사, 초판 1987, 개정판 4쇄 1997.  
 오제도 편, 『1950.9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 정당 · 사회단체등록철』, 한국안보교육협회, 1990.  
 선안나, 『아동문학과 반공이데올로기』, 청동거울, 2009.  
 원종찬,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_\_\_\_\_,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_\_\_\_\_ 편, 『한국아동문학총서』(전50권), 역락, 2010.  
 \_\_\_\_\_,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 3. 논문

- 권나무, 『어린이와 사회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이원수와 강소천의 소년소설』,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박성애, 『1950년대 아동산문문학에 드러나는 이념과 윤리의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집, 한국아동청소년 문학학회, 2011.  
 박영지, 『1950년대 판타지 동화 연구: 이원수의 『꼬마 옥이』와 강소천의 『꿈을 짚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종순, 『이원수 동화 연구: 사회의식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 『이원수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배덕임, 『『꼬마 옥이』 내의 그림자모티프 연구』, 『동화와번역』 1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8.  
 선안나, 『1950년대 동화 · 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오세란, 『이원수의 『꼬마 옥이』에 나타난 자기반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집, 한국아동청소년 문학학회, 2012.  
 이충일, 『1950년대 이원수의 동화, 아동소설 연구』, 『한국문화기술』 5권,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8.  
 \_\_\_\_\_, 『1950~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황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시고』, 『한민족어문학』 6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장영미, 『전후 아동소설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 Korean War and Children's Literature

—Lee Won-soo's War Trauma and 「Kkoma Oki」—

Won, Jong Chan\*

The Korean War greatly changed the geography of children's literary history as Korea was divided into two. Kang So-cheon, who fled to the south during the war, led a new trend, but on the other side, Lee Won-soo worked on creating a whole different trend. The two writers revealed decisive differences in works that remembered the Korean War. Therefore, studies that make comparative reviews of the two writers from a literature history perspective are highly needed, but in reality, there are insufficiencies in keynote studies on the stories of the writers and bibliographies of the work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Lee Won-soo, even the bibliographical issues of his major works are unclear. Therefore,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for follow-up research and it focuses on basic investigations to scrutinize the text issues Lee Won-soo's representative work from the 1950s 「Kkoma Oki」. In result, it was found that 「Kkoma Oki」 was not a 'long series' but a 'collection of series' completed by gathering stories published on various papers over many years, and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y were tied in like a spider web with the numerous long and short stories of the writer. 「Kkoma Oki」 was a symbolic and representative work for the writer who had severe war trauma. A type of discontinuity appears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this series,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deeply related to the double oppression of the 'anti-

---

\* Inha University Professor

communist' mood of the time and the 'sense of guilt' within the author.

**Key words**: Korean War, Children's literature, Lee Won-soo, 『Kkoma Oki』, War trauma, Sense of guilt, Intertextuality